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의 자필 서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Unho Im Seong-ju's Newly Discovered Handwritten Letter

강 순 애 (Kang, Soon Ae)**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자필 서간문의 분석 |
| 2. 녹문 임성주의 삶과 학문전승 | 5. 결론 |
| 3.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에 수록된 도암 이재에게 올린 서간의 내용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글은 새로 발견된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의 자필 서간을 대상으로 녹문 임성주의 삶과 학문전승,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에 수록된 도암 이재에게 올린 서간 내용 및 자필 서간의 서지적·내용적 측면을 연구한 것이다. 녹문 임성주는 조선조 후기 영·정조시기에 낙론에 기반을 두면서도 스승인 이재(李穡)가 주장한 심성설인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호론이 주장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하였고, 이기설(理氣說)에 있어서는 이(理)와 기(氣)의 이원론적 관념을 기(氣)의 일원론적 관념으로 통일 발전시켜 조선조 성리학 육대가(六大家) 중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다. 『녹문선생문집』 권1에는 4편의 서간이 실려 있다. 영조 3년(1727)의 서간은 녹문이 17세에 도암 이재에게 문하의 제자로 받아들여짐을 청하는 것이다. 영조 6년(1730)의 서간은 녹문이 20세 되던 해에 도암 이재에게 자신의 의문점을 물어보기 위해 쓴 것인데 실제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조 13년(1737)의 서간은 녹문이 27세 되던 해에 도암에게 올린 것으로 미발심체(未發心體)의 선악을 다루는 심론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영조 21년(1745)의 서간은 녹문 임성주가 35세 되던 그해 가을에 도암에게 올린 것으로 집안의 합체(合祭) 문제에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다.

임성주의 자필 서간은 『녹문선생문집』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녹문이 영조 16년(1740) 여주에 있으면서 그의 스승인 도암 이재에게 올리고자 작성한 초안이다. 서간의 크기(세로 × 가로)는 61.4 × 38.2cm이다. 필첩 전체는 본문은 세로 25줄, 서간 위쪽 여백에 가로 3줄이다. 전체 글자 수는 본문 475자, 간기 부분이 17자이다. 스승과 관련된 글자인 ‘후(候)’, ‘정중체후(靜中體候)’, ‘문하(門下)’, ‘함장지간(函丈之間)’, ‘등람(登覽)’과 ‘하람(下覽)’ 등의 앞에는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공격(空格)을 두고 있다. 이 서간문 글씨체의 특징은 안진경의 해·행서에 바탕을 두고 필세(筆勢)와 자세(字勢)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강한 기운이 있으면서도 유창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결체(結體)는 근엄하면서도 풍격은 수려하지만 변칙의 멋스러움이 있으면서도 선비의 품격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 글은 내용의 전개상 8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임성주가 스승인 도암 이재의 안부를 여쭙고, 친구 대심(大心; 李維的字)이 죽어서 2주기가 지났는데 대상이 지나기 전에 묘에 가기로 했는데 하지 못했음을 슬퍼하였으며, 집안에 우환과 상사 등이 많아 학문은 제대로 하지 못함을 걱정하였다. 도암 이재에게서 강송하던 시절을 생각하며 학문의 진도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여 우려를 하였고, 순(舜)임금의 ‘惟精惟一’과 공자의 ‘克己復禮’를 생활 속에 실천하려는 다짐을 하였으며, 경계와 체적질 해줄 스승 곁에서 공부하기를 소망하였다. 임성주가 도암과 같이 멀어 자주 회합하지 못함을 걱정하였고, 스승에게 질정 받을 것이 많아 여름에 말을 빌려 비을 계획이며 붙인 글은 어느 때나 받게 될지 우려한 내용이다.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 국어학계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녹문, 임성주, 자필 서간,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녹문의 운필법

* 본 연구는 2015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5년 11월 25일 최초심사일: 201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21일

<ABSTRACT>

In this paper, I studied the newly discovered handwritten letters of Nokmun(鹿門) Im Seongju(任聖周, 1711~1788) by examining Nokmun Im Seongju's life and academic history ; the contents of the letters he wrote to Doam Yi Jae, contained in *Collected Works of Nokmun (Nokmunseonsaengmunjib)* ; and the bibliography and content of the handwritten letters.

Although Nokmun Im Seongju based his philosophy on Nakron(洛論) from the Yeongjo and Jeongjo era of the late Joseon Dynasty, he developed his teacher Yi Jae(李緯)'s Simseongron(性同論) into inmulsongron(人物性同論) to declare inmulsongron(人物性異論) as claimed by Horon(湖論). He united and developed the theory of i (principle) and ki (energy) into the dualistic concept of i and ki, becoming known as one of the six great minds of Joseon's neo-Confucianism.

Volume 1 of *Collected Works of Nokmun* contains four letters. The letter from the third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27) has the seventeen-year-old Nokmun requesting Doam Yi Jae to accept him as a pupil. The letter written on the six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30) contains questions for Doam Yi Jae from the twenty-year-old Nokmun, but was not sent. The letter from the thirteenth year of Yeongjo's reign (1737), written to Doam when Nokmun was 27 years old, is extremely important in the field of Simron which deals with the virtues and vices of Mibalsimche(未發心體). In the letter from the twenty-first year of Yeongjo's reign (1745), written in the fall of Nokmun Im Seongju's 35th year, Nokmun asks for advice on his family's ancestral rites.

Im Seongju's handwritten letters were not included in *Collected Works of Nokmun*, but were drafted by Nokmun in the sixteenth year of Yeongjo's reign (1740) to give to his teacher Doam Yi Jae. The letters measure 61.4 × 38.2 cm in height and length, respectively. The writing in its entirety has 25 vertical lines, with a blank space of 3 horizontal lines on the top of the letter. There are a total of 475 characters and 17 stanzas of the imprint in the text. The characters '候', '靜中體候', '門下', '函丈之間', '登覽', '下覽' which are related to his teacher have a blank space as a mark of respect. The calligraphy in the epistles has its basis on Ahn Jin Kyung's printed and semicursive style with an appropriate balance of brush strokes(筆勢) and character style(字勢), a powerful energy as well as eloquence, while the connecting forms(結體) have gravity and style and variation along with the dignity of a classical scholar.

The writing can be divided into eight paragraphs by content development.

Im Seongju asks after his teacher Doam Yi Jae, expresses his sadness that he was unable to visit his friend Daesim (son of Yi Yu)'s grave before the second memorial ceremony(大祥) as he had intended although two years have passed since Daesim's death, and worries that he is unable to focus on his studies because of troubles and mourning in the family. He recalled his days studying under Doam Yi Jae while worrying that he was not progressing in his studies as he should ; resolved to live according to Emperor Shun's '惟精惟一' and the Confucius philosophy that the superior man makes the difficultly to be overcome his first interest ; '克己復禮' ; and expressed his wish to study with a teacher who would keep him vigilant and urge him on. He worried that he could not see Doam often because they lived so far away, said that he planned to borrow a horse and visit his teacher in the summer because he needed guidance, and worried about when his teacher would receive his letter.

This research will henceforward be used not only in the study of private records but also as the most basic study results in bibliography,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history and Korean linguistics.

Key words: Nokmun, Im Seongju, Handwritten Letters, *Nokmunseonsaengmunjib*, Nokmun's Calligraphy

1. 서론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1711-1788)는 조선조 후기 숙종~정조시기의 대표적인 주기와 성리학자이며, 일부 학자들은 조선조 6대 성리학자로 칭하기도 한다.

임성주의 서간은 그의 문집인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권1-11에 36명의 270편이 실려 있다. 이들 서간문들은 임성주와 관련된 인물들인 스승, 동문, 지우(知友)들과 주고받은 성리학과 예설에 대한 토론, 학문 논의, 문집 간행 등에 대한 내용이 많고, 가족들과는 집안의 형제들이나 조카들과 학문의 토의와 권면, 집안일의 대소사에 대한 소식 등 중요하고 상세한 정보들이 들어 있다.

임성주의 학문은 율곡 이이 → 사계 김장생 → 우암 송시열 → 농암 김창협 → 도암 이재로 이어지는 낙학과(洛學派) 계열로 전승된 성리학에 기반을 두었다. 하지만 그는 낙론에 기반을 두면서도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이원화된 성리학의 체계를 기(氣)의 일원론적 관념으로 통일시켜 주기론을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임성주가 그의 스승인 도암(陶庵) 이재(李穡)에게 올린 서간 중 『녹문선생문집』에 실린 것은 영조 3년(1727), 영조 6년(1730), 영조 13년(1737), 영조 21년(1745)의 네 편뿐이다. 이번에 발굴된 자필 서간은 그의 문집인 『녹문선생문집』에 실려 있지 않다. 다만 내용을 통해 임성주가 영조 16년(1740)에 도암 이재에게 올리려고 작성한 초안임을 알 수 있다. 이 서간은 일상의 일들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회, 학문의 어려움 등을 따뜻하고 정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임성주의 자필로 쓰인 것인데, 글씨체가 안진경의 해·행서체를 바탕으로 한 달필의 서체로 서예 분야에서도 완미할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녹문의 연구는 철학사상, 기철학(氣哲學),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 성론(性論) 등의 연구에 집중되어 왔을 뿐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따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새로 발견된 녹문 임성주의 자필 서간을 중심으로 녹문 임성주의 삶과

학문 전승, 『녹문선생문집』의 서간에 수록된 도암 이재에게 올린 서간과 교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자필 서간의 서지적·내용적 분석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 국어학계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녹문 임성주의 삶과 학문전승

임성주는 숙종 37년(1711)에 청풍(淸風) 노은동(老隱洞) 별업(別業)에서 태어났다. 자(字)는 중사(仲思)이고 호(號)는 녹문(鹿門)이다. 영조 1년(1725)에 부친 임적(任適, 1685-1728)의 임소인 함흥(咸興)으로 갔으며 영조 2년(1726)에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글을 읽고 정통 성리학에 뜻을 두어 『자서(自序)』를 지었다. 이어 영조 3년(1728)에 도암 이재에게 글을 올려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고 이후 문하에서 수학(修學)하며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도암을 평생 스승으로 모셨다. 녹문은 도암 이재와 영조 5년(1730)부터 영조 9년(1734)까지 함께 질문하고 토론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한천어록(寒泉語錄)』으로 묶었다. 영조 4년(1728) 부친상을 당한 후 가족들과 청주 옥화(玉華)에 들어가 형제들과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영조 9년(1733)에는 임명주와 임성주가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그중 녹문은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가 되고 시직(侍直)에 승진하였다. 하지만 연이어 형제가 죽자 사직하고 영조 34년(1758) 공주(公州)의 녹문(鹿門)에 은거하였다. 정조는 즉위년(1776)에 녹문을 불러서 동궁을 보도(輔導)하게 하였다. 후에 지방관을 지내다가 고향인 공주로 돌아가서 학문 연구에 여생을 보냈다.¹⁾

녹문이 살던 18세기 전후 학문의 풍토는 예론(禮論)을 중심으로 한 당쟁이 격화되는 시기로, 호락(湖洛)논쟁²⁾이 전개되었으며, 실학이 형성되었던 시기였다. 이중

1) 任靖周,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부록(附錄)』, 행장(行狀) 참조.

호락논쟁은 율곡의 이통기국(理通氣國)을 이일분수(理一分殊)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들은 심성론(心性論) 문제를 둘러싸고 호론(湖論)과 낙론(洛論)으로 갈라져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낙론 학자들은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인성과 물성이 같고 성(性)은 곧 리(理)이고 심(心)의 본체는 선(善)하다는 설에 토대를 두고 있다. 호론은 충청지역에 기반을 두고 인성과 물성은 다르고 심(心)은 기(氣) 또는 기질(氣質)이며 심(心)에는 선악(善惡)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학과 호락논쟁은 녹문의 학문 성장 배경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그의 사승(師承)관계를 알게 해 준다.

녹문은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 계열의 낙학과(洛學派)에 속하고 정쟁구도에서는 노론에 속한다. 율곡의 학문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에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로 이어져 세 갈래로 나뉜다.³⁾

첫째 계열은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1721) →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 → 운평(雲坪) 송능상(宋能相, 1710-1758) → 심재(心齋) 송환기(宋煥箕, 1728-1807) → 강재(剛齋) 송치규(宋禪圭, 1759-1838)로 이어졌고, 권상하 제자 중의 또 한 사람은 외암(巍巖) 이간(李柬, 1677-1727)이다.

권상하의 제자 중 남당 한원진은 호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성과 물성은 다르고 성인과 범인의 마음도 다르다고 보았다. 심론에서는 ‘心卽氣質’을 주장하여 심의 본체에 선악이 있다는 설을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외암 이간은 낙론의 학자로

2)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용인문화대전, 호락논쟁. [검색일자 2015. 10. 10]

<http://yongin.grandculture.net/Contents?local=yongin&dataType=01&contents_id=GC00900387>.

“호락논쟁(湖洛論爭)은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이라고도 한다. 이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한 한원진(韓元震) 등을 지지한 이들이 충청·호서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으므로 호론(湖論)이라 하며,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한 이간(李柬)·이재(李穡)를 지지한 이들은 서울·경기 낙하(洛下) 지역에 주로 살았으므로 낙론(洛論)이라 하였다. 지역으로 볼 때 용인은 서울 낙하 지역에 포함되며, 이곳은 낙론학자들의 주요한 근거지였다.”

3) 孫興徹, 『鹿門 任聖周의 삶과 哲學 (연세국학총서 43)』 (서울: (주)식산업사, 2004), 70에서 녹문의 사승관계(師承關係)를 다른 논문들을 참조하여 <표 3>으로 재구성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사승관계의 계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선(性善)과 심순선(心純善)에 근거하여 이기동실(理氣同實)과 심성일치론(心性一致論)을 주장하였다.⁴⁾ 이들 두 사람에 의해 호락논쟁이 시작되었다. 남당 한원진의 호론은 운평 송능상, 심재 송환기로 이어졌지만, 강제 송치규는 낙론을 지지하였다.

둘째 계열은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 → 도암(陶庵) 이재(李穡, 1680-1746)로 이어져 겸재(謙齋) 박성원(朴成源), 정암(貞菴) 민우수(閔遇洙, 1694-1756), 역천(櫟泉) 송명흠(宋明欽, 1705-1768),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1711-1788), 한정당(閒靜堂) 송문흠(宋文欽, 1710-1752), 미호(溪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여섯 계열로 나뉜다. 정암 민우수의 제자는 지암(止菴) 김양행(金亮行, 1715-1779)이다. 역천 송명흠의 제자는 추양(秋陽) 송계간(宋啓幹, 1764-1841) → 금곡(錦谷) 송래희(宋來熙, 1791-1867)로 이어졌다. 녹문 임성주의 제자는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 이광정(李光鼎), 박경기(朴慶基), 조카인 영서(潁西) 임노(任魯, 1755-1828)가 있다. 임노의 제자들은 아들인 송야(松野) 임익상(任翼常, 1798-?), 악재(樂齋) 김병주(金炳周), 운초(雲樵) 심기택(沈起澤), 하은(河隱) 이동재(李東宰)가 있다. 미호 김원행의 제자는 근재(近齋) 박운원(朴胤源, 1734-1799), 아들인 삼산재(三山齋) 김리안(金履安, 1722-1791), 오윤상(吳允常)이다. 근재 박운원의 제자는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 →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 1811-1876) →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로 이어졌다. 오윤상의 제자는 동생인 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 1763-1833) → 숙재(肅齋) 조병덕(趙秉惠, 1800-1870)으로 이어졌다.

농암 김창협은 동생 김창흠과 함께 우암 송시열과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 1628-1669)에게서 배웠다. 김창협은 이단상의 사위가 되었다. 그는 기사환국(己巳換局, 1689)이 일어나 아버지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사사(賜死) 되자 영평(永平, 지금 경기도 포천)에 은거하면서 성리학에 몰두하여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과 성악론변(性惡論辨) 등에서 낙론을 지지하였다. 다만 주자학 일변도의 학문관에 얽매이지 않고 도불(道佛)과 양명학(陽明學), 상수학

4) 김현, “조선 후기 미발심론의 심학적 전개,” 『민족문화연구』 37(2003), 362.

(象數學)에 관심을 기울였다.⁵⁾

농암의 학문은 도암 이재에게 전수되었다. 그는 심곡서원(深谷書院)과 용인향숙(龍仁鄉塾)에서 10년, 용인의 한천정사(寒泉精舍)에서 19년간 『소학(小學)』을 비롯하여 사서(四書)와 육경(六經) 등을 강학하였는데, 그의 강설은 그의 제자들이 정리하였다. 그는 낙론의 핵심인 성즉리(性卽理), 심본선(心本善), 심(心)은 기(氣)의 영처(靈處), 이기동실(理氣同實), 심성일치(心性一致)를 견지하면서, 인성과 물성이 같고 성인과 범인의 마음도 본체에서는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과 명덕(明德)에 분수가 없음을 강조하였다.⁶⁾

그의 제자 중 미호 김원행은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손자로 경기도 양주에 석실서원(石室書院)에서 도암 이재를 이어 학규를 세우고 강학을 하였다. 그는 특히 스승인 도암 이재를 가장 충실하게 따르면서 낙론의 심성설을 강론하였는데, 성(性)은 리(理)이고, 심(心)은 기(氣)의 영처(靈處) 즉 명덕(明德)으로 보았다.⁷⁾

녹문 임성주는 낙론에 기반을 두면서도 스승인 이재(李縉)가 주장한 심성설인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호론이 주장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하였고, 이기설(理氣說)에 있어서는 주리설(主理說)을 배격하고 주기설(主氣說)을 주장했으나 만년에는 양설(兩說)을 절충하여 이(理)와 기(氣)의 이원론적 관념을 기(氣)의 일원론적 관념으로 통일 발전시켜 조선조 성리학 육대가(六大家) 중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다.

셋째 계열은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 → 기원(杞園) 어유봉(魚有鳳, 1672-1744), 정암(貞庵) 민우수(閔遇洙, 1694-1756), 여호(黎湖) 박필주(朴弼周, 1665-1748)로 이어졌다. 민우수의 제자는 지암(止庵) 김양행(金亮行, 1715-1779) → 문원(文原) 이우신(李友信, ?-1822) → 화서(華西) 이항노(李恒老, 1792-1868) →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 1819-1888) ·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教, 1832-1893) ·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4-1907)을 거쳐서 김평묵 → 홍재학

5) 김문준, “김창흡의 학문경향과 후대의 영향,” 『한국인물사연구』 2(2004), 2-6.

6) 권오영, “18세기 洛論의 學風과 思想의 계승양상,” 『진단학보』 108(2009), 225.

7) 권오영(2009), 207.

(洪在鶴, 1848-881), 유증교 → 유인석(柳麟錫, 1942-1915)으로 이어졌다.

삼연(三淵) 김창흡은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과 미발심체순선(未發心體純善)을 주장하는 낙론 중심의 학자였다. 그의 낙론은 형인 김창협과 함께 어유봉, 박필주 등에게 영향을 미치며 농암학과라고 불리는 학맥을 형성하였다. 조선조 말기에는 김창흡 → 민우수 계열의 화서 이항노와 김창협 → 김원행 → 박윤원 계열의 홍직필과 김창협 → 김원행 → 오윤상 계열의 오희상 사이에는 경기양파(京嘉兩派)의 분열이라고 불리는 명덕(明德)과 본심(本心)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⁸⁾ 삼연은 낙학의 인성뿐만 아니라 물성에도 학문적인 관심을 보였고 더 나아가 양명학(陽明學), 상수학(象數學), 명물도수학(名物度數學)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는 경향의 선구가 되었다.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문 임성주의 학문 전승은 율곡 이이 → 사계 김장생 → 우암 송시열 → 농암 김창협 → 도암 이재 → 녹문 임성주로 이어지는 낙학과(洛學派)이다. 녹문은 어려서는 가학(家學)에 의지하였고, 17세에 도암 이재의 문하가 되면서 학문의 입지를 세우고 스승을 철저히 따랐다. 그 시기에 학문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도암 이재의 문하인 이종형 역천 송명흠과 그의 동생, 한정당 송문흠, 미호 김원행, 김창흡의 제자 민우수와 그의 제자 지암 김양행, 그리고 남당 한원진의 제자 운평 송능상이 있고, 함일재(涵一齋) 신소(申昭), 밀암(密庵) 김지행(金砥行, 1716-1774) 등과도 교류하였다. 그의 학맥은 운호 임정주, 임윤지당과 이광정, 박경기, 조카인 영서 임노로 이어지고, 임노의 제자들은 아들인 송야 임익상, 약재 김병주, 운초 심기택, 하은 이동재로 이어졌다.

녹문이 조선 성리학사에 공헌한 것은 첫째, 이기동실(理氣同實)과 심성일치(心性一致)를 제시하여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둘째, 이일분수(理一分殊)에 대한 이기론의 논쟁에서는 이기동실(理氣同實)이라는 명제를 전제로 이일분수(理一分殊)와 함께 기일분수(氣一分殊)를 제시함으로써 종래 이(理) 중심의 형이상적 개념으로 이해되던 성(性)의 개념을 실제 개념으로 이해하

8) 김문준(2004), 15.

9) 김문준(2004), 16.

게 되었다. 셋째, 인심도심론(人心道心論)에서는 이기동실, 심성일치, 성범일치(聖凡一致) 등을 대전제로 하여 인심과 도심의 근원은 주리적(主理的) 경향에 의거하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은 순선(純善)의 기(氣)라고 주장하였다. 마음을 이해하고 수양하는 공부 방법으로 개인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아우르는 종합적 체계를 완성하였다.¹⁰⁾

3.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에 수록된 도암 이재에게 올린 서간의 내용

『녹문선생문집』 권1에는 임성주가 17세 되던 영조 3년(1727) 12월에 도암 이재에게 나아가 문하가 되기를 청하는 서간을 비롯하여 영조 6년(1730), 영조 13년(1737), 영조 21년(1745)에 쓴 4편의 서간이 실려 있다. 이 서간 4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영조 3년(1727)의 서간

이 서간은 녹문 임성주가 17세 되던 해인 영조 3년(1727) 12월 20일에 도암 이재에게 문하의 제자로 받아주기를 청하는 글이다. 글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요약된다.

첫째, 녹문은 서간에서 “세상에서 문장이 우뚝하고 도덕이 높아 한 세대에서 존송하고 경앙하는 이로는 오직 도암 이재 한 분만 계실 따름이며, [중략] 선생님께서 명망이 세상에 알려진 까닭은 그 덕 때문이고 문장은 단지 아름다운 심정이 밖에 드러난 것일 뿐이다.”¹¹⁾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도암 이재의 문하에 들어가

10) 김문준(2004), 449-452.

11)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1 「上陶庵李先生 緯」.

“丁未(영조 3, 1727)十二月二十日。西河任聖周。謹齋沐裁書。請納再拜之禮于陶庵老先生座下。小生之慕先生而願見也久矣。幼也竊聞諸人。皆以爲當今文章高而道德尊。爲一世

과거(科擧)와 공명이 아닌 근본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둘째, 녹문은 또한 서간에서 “그동안 책침지장(責沈之章)¹²⁾을 외우기만 하면서 도(道)가 있는 이에게 나아가 질정하는 교훈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은 본래 편벽되고 순수하지 못한 자질로 물욕의 누(累)를 더하여 일찍이 명리에 물들고 실제 공부에는 뜻을 두지 않아 17년의 세월을 보내느라 본심(本心)이 모두 깎이거나 손상되었으며, 근년에 와서 하늘의 영모함을 의뢰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차츰 깨닫게 되었으나 헛되이 변화의 공력(功力)을 생각하였지만 (자신의 앞을) 두텁게 가리고 있는 것을 타개하기 어려워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고, 경적은 한 없이 범위가 넓어 학문의 길을 찾아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¹³⁾라고 하였다. 녹문은 자신이 명리에 물들어 실제 공부에 뜻을 두지 않아 허송세월을 보냈던 시간을 후회하고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도암 이재와 같은 큰 스승에게 나아가 질정 받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셋째, 녹문은 서간 말미에서 “자신을 미루어 남에게 미쳐 중덕(中德)을 지닌 사람은 지니지 못한 사람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군자가 게을리 하지 않는 지극한 뜻이니 지금 선생님께서 반드시 어리석다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텅 비었다고 버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어리석은 말을 들으시고 비루한 모습을 살피시어 역시

所宗仰者。惟有先生一人而已。時則小生氣方銳而志未定。所欲者科名耳。私竊思之曰我方以文章之未進爲憂。若得致身高門。獲沾餘波。則其效可立而待也。及稍長粗聞古人爲己之學。而志不在於科名。則又竊自語於心曰。先生之所以名於世者以其德也。文章特其英華之發於外者耳。…”

12) 책침문(責沈文): 송(宋)나라 진형중(陳螢中)이 범순부(范淳夫)와 같은 관사에 있었는데, 범순부가 “안자(顔子)는 노여움을 옮기지 않았고 과오를 두 번 저지르지 않았는데 정백순(程伯淳)이 그런 점을 가졌다.” 하니, 진형중이 “정백순이 누구인가?” 하자, 범순부가 “정백순을 모른단 말인가?” 하였는데, 진형중이 사실 몰랐다고 사과하고 항상 부끄럽게 여기다가 노(魯)나라 섭공 침(葉公沈)이 자로(子路)에게 “공자(孔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은 사실을 인용하여 섭공을 질책하는 내용의 ‘책침문’을 지었다. 이는 당시의 현자를 알지 못한 데 대한 비유이다.

13)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1 「上陶庵李先生 緯」.
“…徒誦責沈之章。以負就道之訓也哉。蓋念小生。本以偏駁之質。加以物欲之累。早染聲利。無意實地。坐送十七年光陰。本心之斲喪殆盡。雖幸近歲以來。賴天之靈。稍覺曩日之非。妄意變化之功而厚蔽難開。自拔無路。經籍浩浩。又不知所以入…”

반드시 측연(測然)히 여기시기를 그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삼가 원하오니 선생님께서 앉으신 채로 받아 주셔서 오려고 하는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지도하고 키워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장명자(將命者)를 통하여 먼저 서간을 올리고 문병(門屏) 밖에 서서 진퇴를 기다리겠습니다.”¹⁴⁾라고 하였다. 이는 도암 이재를 스승으로 삼아 학문에 진력할 것이니 꼭 제자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들어 있다. 이때부터 녹문은 도암 이재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며 학문연구에 전념하였고, 도암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다.

3.2 영조 6년(1730)의 서간

이 서간은 녹문 임성주가 20세 되던 해인 영조 6년(1730)에 도암 이재에게 자신의 의문점을 물어보기 위해 쓴 것인데 실제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녹문은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答石子重』에 “朱子說 兼出入兩字。有善有惡。不可皆謂舍亡所致云者。[출입(出入) 두 글자를 겸하여 선도 있고 악도 있으므로 모두 놓아서 잃어버린 소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읽고 의심이 없었다.

그런데 송시열이 이 글에 대한 해석을 “後得尤翁說 乃以爲出入皆有善惡。而引非辟之心入之之語 爲入亦有惡之[우옹(尤翁: 송시열을 이름)의 설명을 보니, 출입에 모두 선악이 있다고 여겼으며 편벽된 마음이 들어온다는 말을 인용하여 입(入) 또한 악이 있다.]”라는 해석한 것에 대해 녹문은 의구심을 품었다. 녹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맹자(孟子)』 『고자(告子)』 상(上) 제8장 우산지목(牛山之木)에 나오는 정자(程子)의 “心豈有出入。亦以操捨言之耳。[마음이 어찌 출입이 있겠는가? 이 또한 지키고 있는가 놓아 버리는가를 가지고서 말한 것뿐이다.]”라

14)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1 『上陶庵李先生 緯』.

“… 推己而及人。以中養不中。乃君子不倦之至意。則今先生必不以愚下而退之。空空而棄之也明矣。而聽愚言而察鄙狀。亦必有惻然而不能已者矣。伏願先生坐而受之。毋辜其所以來之意。幸有以指導而鎔鑄之。謹以書先于將命者。而立於門屏之外。以俟進退焉。”

는 구절¹⁵⁾과 정자의 범녀지설(范女之說)¹⁶⁾의 논변을 인용하여 “출입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항상 가슴속에 있어 달려가거나 날아오르는 근심이 없음을 말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출입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 여인과 같지 않아서 놓아 버리면 없어짐이 없을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 몇 단락을 근거하여 그 출입을 존망(存亡)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여 의심이 없습니다.”¹⁷⁾라고 하였다.

녹문은 스승에게 다시 의문을 제기하기를 “지난번의 하교에 이르기를, 주자가 만약 선악(善惡)을 나누어 소속시켰다면 반드시 더러는 선하고 더러는 악하다고 말했을 것이고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터이니 이는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나 선배의 문자에 간혹 약간 허술한 곳이 없지 않다. 또 수(雖) 자 아래에 유(有) 자 역시 성립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아마도 단안(斷案)이 되기에는 부족

-
- 15) 『맹자(孟子)』 『告子』 上 제8장(牛山之木): “孔子曰 操則存하고 舍則亡하여 出入無時하며 莫知其鄉은 惟心之謂與인지 하시니라 孔子言心은 操之則在此하고 舍之則失去하여 其出入이 無定時하고 亦無定處如此라 하시니 孟子引之하여 以明心之神明不測이 得失之易而 保守之難이라 不可頃刻失其養하시니 學者當無時而不用其力하여 使神清氣定하여 常如平旦之時면 則此心常存하여 無適而非仁義矣리라 程子曰 心豈有出入이리오 亦以操舍而言耳니 操之道는 敬以直內而已니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잡으면 여기에 있고, 놓으면 잃어버려서 그 출입이 정해진 때가 없으며, 또한 정처(定處)가 없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맹자(孟子)께서 이것을 인용하여, 마음은 신묘하게 밝아 헤아릴 수 없고, 얻고 잃음은 쉬우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어려우니 잠시라도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불가하니, 배우는 사람은 때때로 그 힘을 쏟지 않아서는 안 됨을 밝히신 것이다. 배우는 자가 마땅히 때마다 그 힘을 쓰지 않음이 없어서, 정신이 맑고 기운이 안정되게 하여, 항상 평단(平旦)의 때와 같이 한다면, 이 마음이 항상 보존되어 가는 곳마다 인의(仁義) 아님이 없을 것이다.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마음이 어찌 출입이 있겠는가? 이 또한 지키고 있는가 놓아버리는가를 가지고서 말한 것뿐이니, 마음을 잡는 방법은 경(敬)으로써 내면을 곧게 하는 것일 뿐이다.”]
- 16) 범녀지설(范女之說): “范淳夫女所言. 孟子不識心. 心豈有出入. 程子因贊. 此女雖不識孟子. 却識心. 孟子與范女所言. 異同何義” [범순부(范淳夫 범조우(范祖禹))의 딸이 말한 ‘맹자는 마음이라는 것을 모른다. 마음이 어찌 나고 드는 것이 있겠느냐?’ 한 데 대하여 정자(程子)가 ‘이 여인이 맹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알았다.’고 칭찬한 것을 들어 말하면서, 맹자와 범녀(范女)의 말이 다른 것은 무엇이나.]
- 17)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1 『上陶菴李先生 丁巳(영조 13, 1737) 三月』.
“… 所謂無出入者. 言其心常在腔子裡. 無馳騖飛揚之患也. 人有出入者. 言他人之心則不似此女. 不能無舍亡也. 據此數段. 其以出入作存亡看者分明無疑. …”

한 듯하다고 하셨습니다.”¹⁸⁾라고 하였다.

녹문은 이에 대해 스승에게 통렬하게 변석(辨釋)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3.3 영조 13년(1737)의 서간

이 서간은 녹문 임성주가 27세 되던 해인 영조 13년(1737) 3월에 도암에게 올린 것이다. 녹문에게 있어서는 미발심체(未發心體)의 선악을 다루는 심론(心論)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서간이다.

녹문은 영조 11년(1735)에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1681-1767)가 남당 한원진과 외암 이간 사이에 논의되던 논쟁¹⁹⁾의 일부를 도암 이재에게 가져와 토론을 벌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²⁰⁾ 녹문은 인간의 심(心)은 성인(聖人)과 범인(凡人)의 구별 없이 모두 선하다고 하는 스승 도암 이재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미발심체의 순선(純善) 및 성범심동(聖凡心同)을 주장하는 스승의 이론에 논리

18)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1 『上陶菴李先生 丁巳(영조 13, 1737) 三月』.

“… 下教曰朱子若以善惡分屬於出入則必曰或善或惡。而不曰有善有惡矣。此固然矣。然先輩文字。或不無少踈處。且雖下有字。亦無不成矣。此則恐不足爲斷案。…”

19) Daum 백과사전, 한원진(韓元震). [검색일자 2015. 9. 9.]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4h2992a>>.

“…이들 논쟁의 쟁점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동이(同異)와 ‘미발심체(未發心體)의 선악(善惡) 두 가지로 집약된다. 송시열 학파 강문 8학사의 한 사람인 외암 이간(李柬)은 인성과 물성은 동일한 것이며 미발일 때 인간의 마음은 지극히 선하다고 주장하여 낙론(洛論)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종래의 주자학적 인식 범주를 인간과 세계, 객관사물의 세계에 확대해가는 실마리를 열어놓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남당 한원진은 만물의 생성을 3층의 구조로 파악하고 이를 심성설에 적용, 인기질(因氣質)의 차원에서 인성과 물성을 비교하여 차이를 명백히 드러내고 선악의 근원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성취를 당위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곧 인간·사회관계가 상하·준비·귀천이라는 사회적·도덕적 차등관계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논쟁은 송시열 학파 중심의 노론 세력이 남인·소론과 정치적·사상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내부 분열이자 이념의 재정비 움직임이었다.…”

20) 金炫, “任聖周의 人物性論,” 『儒教思想研究』 (1993), 47에 의하면, “… 병계 윤봉구가 제기한 이론은 기(氣)가 청탁부제(淸濁不齊)하니 그에 따라 성인(聖人)과 범인(凡人)의 심성(心性)에는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었는데, 도암 이재는 이 같은 병계의 주장에 대해 기(氣)가 차별적이라고 해서 심(心)까지도 차별적으로 보아서 안 된다는 반론을 폈다. 하지만 병계가 쉽게 동의하지 않자 그의 설을 ‘명덕분수설(明德分數說)’이라 지칭하였다. …”

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하였는데, 위의 서간에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녹문은 서간에서 “중간에 기(氣)를 가리켜 운운(云云)한 것은 끝내 완전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대저 심(心)과 기질(氣質)은 진실로 균등한 기입니다. 그런데 기질이라고 하면 일신(一身)의 혈기와 찌꺼기(渣滓)를 통틀어 말한 것이고, 심(心)은 바로 기의 정영(精英)과 정수(靜粹)일 뿐입니다. [중략] 한 마음(一心)의 완전한 덕(全德)을 말하면 진실로 성정(性情)을 겸해서 거론함이 합당하니 그 실체를 갖추었기 때문이고, 허령(虛靈)한 본체(本體)를 논한다면 단지 기(氣)에 나아가 그 본래 밝은 것을 밝히는 것이 적합하지만 성(性)에 힘을 의뢰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누어 쪼개기 때문입니다. [중략] 지금 상문(上文)에서 말하기를, ‘심(心)은 진실로 기(氣)이다’라고 하였는데, 반드시 성(性)과 기(氣)를 합쳐 말하여야 그 뜻이 갖추어집니다. ‘단지 기를 가리켜 말하면 성인(聖人)과 중인(衆人)의 마음이 어찌 가지런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으니, 그 뜻이 이 마음의 본체를 가지고 반드시 성(性)과 허령을 합친 연후에야 바야흐로 그 뜻을 다한다고 하면서 단지 허령만을 설명한다면 문득 가지런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윤장(尹丈, 윤봉구)이 말한 바의 설명과 아마 매우 다를 것이 없으니, 삼가 생각하건대 본래의 뜻은 틀림없이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분명하게 해석하셔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²¹⁾

녹문은 이 서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스승인 도암 이재에게서 결국 분명한 답을 듣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나가는 중요한 논제가 되었다. 녹문은 심(心)은 기(氣)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심은 보편적으로 순선하다고 하는 것의 두 가지 주장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장횡거(張橫居)의

21)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1 「上陶菴李先生 丁巳(영조 13, 1737) 三月」.
“所答尹丈書。上下語意。精切完備。無復可疑。而中間單指氣云云一段。終覺未安。夫心與氣質。固均是氣也。而氣質則通一身血氣渣滓而言之也。心則乃氣之精英耳。…是故語一心之全德則固當兼舉性情。所以該其實也。論虛靈之本體則只宜即氣而明其本明。不必藉力於性。所以析其分也。…今於上文曰心固氣也。而必合性與氣言之。其義乃備。而繼而曰單指氣而言則聖人衆人之心。容有不齊。其意若以此心本體。必合性與虛靈然後方盡其義。而單說虛靈則便有不齊也。如此則與尹丈說。殆無甚異。伏想本意必不如此。…乞賜辨釋。”

기철학에서 해답을 찾았다. 즉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맑고, 탁하고, 순수하고 잡박하여 수만 가지로 다르다고 해도 그 본체는 단지 담일(湛一)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²²⁾ 하였다. 기의 본체가 담일하다는 것은 결국 이(理)와 기(氣)를 하나로 보는 ‘이기동실(異氣同實)’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기관계(理氣關係)를 확립하게 되었다. 또한 성(性)의 이론에서도 인간의 심이 성과 다른 없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와 기의 차별을 부인했고, 이기(理氣)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동일시했다.²³⁾

3.4 영조 21년(1745)의 서간

이 서간은 녹문 임성주가 35세 되던 해인 영조 21년(1745) 가을에 도암에게 올린 것으로 집안의 합제(合祭) 문제에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다.

녹문은 서간에서 “저의 집안 고조(高祖)를 계승하는 종손이 후사(後嗣)가 없고 지금 중형(從兄)의 삼년상(三年喪)이 이미 지나 고조의 신주(神主)를 당연히 최장방(最長房: 4대손 가운데 향렬이 가장 높은 사람)의 집으로 옮겨 받들어야 합니다. 종가(宗家)에는 후계(後繼)를 아직 세우지 못하여 합제를 하는 데 주제(主祭)할 사람이 없습니다.”²⁴⁾라고 하였다.

그 다음의 내용은 “만약 늦어지더라도 후계 세우기를 기다려 예(禮)대로 합제한 뒤에 옮겨서 받들려고 한다면 후계를 세우는 지속(遲速)은 알 수가 없어 한 때나마 제사를 폐지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만약 합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옮겨

22)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16, 雜著「大學」.

“…於中歲以後, 賴天之靈, 有味乎張子湛一之訓. 而知所謂氣質者, 雖清濁粹駁有萬不齊. 而其本體則只湛一而已矣. 然後乃見夫心之靈者, 即氣之靈耳. 非氣外別有靈底心也. 性之善者, 即氣之善耳. 非氣外別有善底性也. …”

23) 金炫, “任聖周의 人物性論,” 『儒教思想研究』 (1993), 54.

24)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1「上陶庵李先生 乙丑(영조 21, 1745)秋」.

“鄙家繼高祖之宗無後. 今宗兄三年已過, 高祖神主當遷奉于最長房. 而宗家尙未立後, 合祭無人可主.”

서 받드는 일을 먼저 행한다면 또한 전례(典禮)에 근거할 만한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인정(人情)에 적합하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중략] 단지 주제할 사람이 없는데 앞질러 체천(遞遷)을 행하는 것은 끝내 미안(未安)하게 생각되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²⁵⁾라고 하였는데, 녹문이 이에 대한 실제 방안이 없자 도암 이재에게 여쭙어 본 것이다.

4. 자필 서간문의 분석

자필 서간은 임성주가 영조 16년(1740)에 스승인 도암 이재에게 올린 글이다. 서간에 제목은 없지만 내용을 보면 여주(驪州)에 머물면서 자기의 일상을 보고하려고 쓴 초안이다. 특히 학문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의문이 나는 것은 스승에게 나아가 물을 것임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녹문선생문집』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몇 가지 새로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글이다. 이 자필 서간의 서지적 분석 및 내용적 분석을 구체적으로 시도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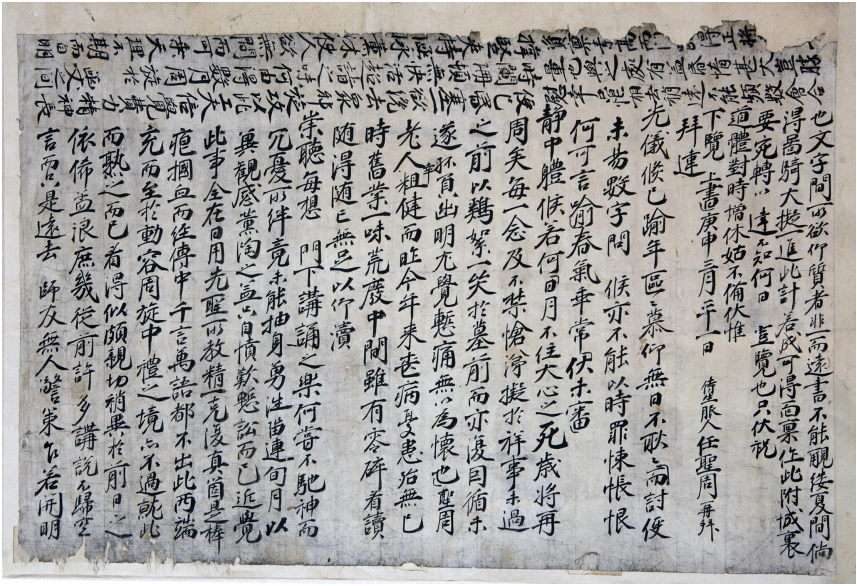
4.1 서지적 분석

자필 서간은 녹문 임성주가 영조 16년(1740) 여주에 머무르면서 그의 스승인 도암 이재에게 올리려고 작성한 초안이다. 서간의 크기(세로 × 가로)는 61.4 × 38.2cm이다. 필첩 전체는 본문은 세로 25줄, 서간 위쪽 여백에 가로 3줄이다. 전체 글자 수는 본문 475자, 자필연도 17자이다. 스승의 안부를 묻는 글자인 ‘후(候)’, ‘정중체후(靜中體候)’, 도암 이재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문하(門下)’, 스승을 나타내는 ‘함장지간(函丈之間)’, 상대방이 내용을 본다는 뜻의 ‘등람(登覽)’과 ‘하

25)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1 『上陶庵李先生 乙丑(영조 21, 1745)秋』.

“…若欲遲待立後。如禮合祭而後遷奉。則立後遲速。有未可知。而廢祭一時爲悶。若欲不待合祭。而先行遷奉則又無典禮之可據。未知何以則合乎人情而不悖於禮耶。…但無主人而徑行遞遷。終覺未安。未知果何如。”

람(下覽)’ 등의 앞에는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공격(空格)을 두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녹문 임성주의 자필 서간











서간 글씨체의 특징은 안진경의 해·행서에 바탕을 두고 필세(筆勢)와 자세(字勢)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강한 기운이 있으면서도 유창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결체(結體)는 근엄하면서도 풍격은 수려하지만 변칙의 멋스러움이 있으면서도 선비의 품격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를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성주의 글씨체는 안진경체를 철저히 기본으로 하는 글씨체를 바탕으로 하면서 능서가(能書家)로서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몇 부림의 글씨들이 있는데, 이러한 글자체의 활자들을 표집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이(已)’자는 5자 정도 보이는데 파임 처리에 있어 각 글자의 종획을 길게

하는 것은 매우 비슷하지만 나머지는 글씨체에 다양한 변화의 미를 가하여 기교를 부린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글씨체에도 파임의 특징이 있는데 이 글자들을 <표 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이(已)자와 기타 글자들 파임의 다양한 글씨체

구분	①	②	③	④	⑤
已	 (倏已踰年-已)	 (便已昏塞-已)	 (殆無已時-已)	 (慙訟而已-已)	 (熟之而已-已)
기타	 (無以爲懷也-也)	 (登覽也-也)	 (大心之死-死)	 (冗憂所絆-冗)	 (先聖所教-先)

<표 1>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已)’ 자는 안진경체에서는 단아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녹문 글씨체의 특징은 ①의 ‘已’와 ②의 ‘已’는 파임의 종획을 길게 하고 횡획을 짧게 한 다음 끝머리를 들어 올리는 획은 길게 하였다. ③의 ‘已’는 파임의 종획을 길게 하고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내려 굽고 종획과 횡획의 연결되는 부분은 각이 지게 하고 횡획은 길게 빼서 마무리 획까지 연결해서 들어 올리는 모양이 마치 하나의 획으로 보이듯 변화를 주고 있다. ④의 ‘已’는 파임의 종획을 부드럽게 안쪽으로 당겨 내려서 곡선형을 만들면서 횡획으로 연결하여 길게 빼고 들어 올리는 획도 종획과 구분을 두면서도 길게 처리하여 가장 예술적인 글자를 만들었다. ⑤의 ‘已’는 ③의 ‘已’와 마무리가 비슷하지만, ⑤의 ‘已’가 종획과 횡획의 연결되는 부분은 곡선형으로 처리하여 매우 부드럽다.

둘째, 기타의 다섯 글자체도 파임에서 그 특징이 돋보이는 글자들이다. 기타 ①의 ‘也’와 ②의 ‘也’는 종획, 횡획, 마무리가 매우 비슷하지만, ②의 ‘也’가 종획을 길게 하고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내려 굽고 횡획은 미리 들어 올려

더 가벼운 느낌이 있다. ③의 ‘死’는 글씨체가 크면서도 전체적으로 묘한 균형이 있다. 파임은 중획과 횡획을 두툼하게 운필하여 마무리는 눌러서 가볍게 들어 올렸다. ④의 ‘死’과 ⑤의 ‘先’은 파임은 중획이 길고 횡획이 짧으며 마무리가 길다. 특히 ④의 ‘死’은 마무리가 가늘고 길게 위로 솟구쳐서 마치 촛불 끝이 길게 위로 타오르는 듯하다.

2) 장날(長捺: 오른쪽 빼침의 파임)의 글자들도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지(之)’, ‘족(足)’, ‘시(是)’, ‘근(近)’, ‘과(過)’, ‘수(遂)’의 글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지(之)자와 기타 글자들 장날(長捺)의 다양한 글씨체

구분	①	②	③	④	⑤
之	(熟之而已-之)	(薰陶之益-之)	(中禮之境-之)	(大心之死-之)	(講誦之樂-之)
기타	(無足以仰讚崇聽-足)	(真箇是梅痕搨血-是)	(近覺此事-近)	(亦不過就此-過)	(亦復因循未遂-遂)

<표 2>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之)’는 안진경체의 특징이 잘 살아 있는 글씨체이다. 녹문 글씨체의 장날(長捺)의 파임획은 ①, ②, ③, ④, ⑤ 모두 경사지게 길게 운필하여 오목하게 멈춤하여 다시 위로 부드럽게 올려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①의 ‘之’, ②의 ‘之’, ④의 ‘之’는 매우 비슷하고, ③의 ‘之’와 ⑤의 ‘之’는 경사지게 내려오는 운필이 길고 마무리도 길다.

둘째, 기타의 ①의 ‘足’과 ②의 ‘是’는 ‘口’와 ‘日’의 아랫부분인 ‘廾’가 안진경체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글씨체이다. 다만 장날의 파임의 처리가 다르다. ①의 ‘足’의 장날의 파임획은 경사지게 운필하여 오목하게 멈춤하여 다시 위로 경사

지게 올려 마무리하는 것에 비해 ②의 ‘**止**’는 거의 일자로 길게 운필하고 있어 멋이 없다. ③의 ‘**近**’, ④의 ‘**迢**’, ⑤의 ‘**遂**’도 장날(長捺)의 파임획은 위의 획을 감싸듯 마무리하여 각각의 특징이 있다.

3) ‘작(昨)’과 ‘작(作)’의 글씨체는 약간 기교를 부려 ‘**昨**’과 ‘**作**’으로 쓰고 있는데, ‘작(昨)’과 ‘작(作)’의 ‘乍’는 마지막 획을 길게 처리하여 멋을 부리고 있다.

4) 안진경체에서 ‘약(若)’, ‘광(光)’, ‘서(庶)’ 등의 글자는 좌측 삐침획은 글자와의 균형미를 단순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녹문 글씨체의 특징은 좌측 삐침획을 길게 하여 다음 글자와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첫째, ‘약성(若成)’, ‘작약개명(乍若開明)’, ‘약하(若何)’의 ‘약(若)’ 글씨체는 ‘**若**’, ‘**若**’, ‘**若**’와 같이 좌측 삐침획을 유난히 길게 하여 다음에 오는 글씨체와 균형을 맞추고 있다. 둘째, ‘광의(光儀)’와 ‘서기(庶幾)’는 ‘**光**’와 ‘**幾**’와 같이 윗글 자는 왼쪽 삐침 획을 길게 하고 아래글자는 오른쪽 파임 획을 길게 하여 두 글자가 어우러지도록 몇 부림의 기교를 한껏 부리고 있다.

4.2 내용적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문 임정주가 스승인 도암 이재에게 올린 글은 문집에 네 편만 수록되었다. 이 자필 서간문은 『녹문선생문집』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글이다.

임성주가 영조 16년(1740)에 스승인 도암 이재에게 올리려고 쓴 서간은, 제목은 없지만 내용을 보면 여주(驪州)에 머물면서 자기의 일상과 학문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실천을 보고한 것이다. 특히 의문점을 스승에게 나아가 물을 것임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의 전개 상 전문에 토를 붙여 <표 3>으로 소개하고, 해석의 전문을 <표 4>로 제시하며, 임의로 <표 5>와 같이 8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녹문 임성주의 자필 서간 전문 및 토

1) 光儀가 倏已踰年하니 區區慕仰이 無日不耿耿이라²⁶而討便未易하야 數字問候도 亦不能以時하니 罪悚悵恨을 何可言喻」리오 春氣乖常하니 『伏未審』 靜中體候가 若何오//

2) 『日月不住하야 大心之死 歲將再周矣라 每一念及에 不禁愴涕라 擬於祥事未過之前에 以鷄絮²⁶一哭於墓前이로대 而亦復因循²⁷未遂하야 孤負幽明이 尤覺慙痛하야 無以爲懷也」라.//

3) 聖周는 老人幸粗健하되 而昨今年來로 喪病憂患이 殆無已時하야 舊業一味도 荒廢하니 中間에 雖有零碎看讀이나 隨得隨亡이라 無足以仰瀆崇聽이라.//

4) 每想門下講誦之樂에 何嘗不馳神이리오마는 而冗憂所絆하야 竟未能抽身勇往하야 留連旬月하야 以冀觀感薰陶之益하니 只自憤歎慙訟而已라.//

5) 近覺此事全在日用하고 先聖所教 精一克復²⁸ 眞箇는 棒痕擱血이며 而經典中에 千言萬語가 都不出此兩端하니 充而至於動容周旋中禮之境하야도 亦不過就此而熟之而已라 看得에 似頗親切하야 稍異於前日之依循孟浪이오 庶幾從前許多講說이 不歸空言한대.//

6) 而只是遠去 師友하야 無人警策하니 乍若開明이리가 便已昏塞하니 一欲纔去에 衆邪旋攻하야 以此工夫로 倍覺費力하야도 精神長時闌珊하야 頓無快活超詣之味하니 何由得數月周旋於函丈之間하야 撐豎夾持 涵泳薰沐하야 使人欲無間而可乘이면 天理不期而自明이라.//

7) 資稟素高하고 而門路得正하야 將???量也라 與之處에 有益昏惰甚大하니 豈勝慰幸이리오 只恨相去稍遠하야 不能頻數會合也라.//

8) 文字間에 所欲仰質者 非一一이로대 而遠書不能繾綣라 夏間에 倘得面圖하야 大擬一進하니 此計若成이면 可得面稟이라 作此附城裏要婉轉以達하니 不知何日登覽也라 只伏祝道體對時增休하고 姑不備하오니 伏惟下覽하오며 上書하노이다.//

庚申(英祖16년, 1740) 三月 二十一日 侍生服人任聖周(1711-1788)再拜

//: 임의로 나눈 단락의 표시임.

26) 계서(鷄絮): 적계서주(炙鷄絮酒)의 준말로 번번찮은 제사 음식을 말한다. 후한(後漢) 때 서치(徐穉)가 아는 사람을 조문할 때 구운 닭과 술에다가 술을 적시어서 말린 다음 이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술을 물에 적서 술을 만들어 전을 올리고는 상주(喪主)를 보지 않은 채 되돌아왔다(『世說』 『德行 1』).

27) 인순(因循): 因循姑息을 의미함. 사람은 습관이나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을 취한다는 뜻이다.

28) 정일극복(精一克復): 순(舜)임금의 ‘오직 정(精)하고 오직 한결같아야 한다.’는 경계와 공자(孔子)의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회복하라.’는 말씀을 이른다.

<표 4> 녹문 임성주의 자필 서간 해석 전문

1) 존안을 뵈지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니 구구하게 사모하고 우러르는 것이 잊지 않고 날마다 생각이 납니다. 「인편을 찾지 못하여 몇 자 적어 문후 여쭙는 것도 역시 제때에 하지 못하였으니 죄송하고 슬픈 마음을 어떻게 말로 비유하리오.」 봄기운이 평상을 어긴 때에 「살피지 못한」 정양중의 체후가 어떠하십니까?//

2) 「일월이 머물지 않아 친구 대심(大心)²⁹⁾이 죽은 지가 2주기가 되었습니다. 매번 생각이 미침에 서글퍼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지나기 전에 계서(鷄黍: 닭 한 마리와 술에 적신 솜)로 모 앞에서 한 번 곡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미적거리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뜻을 저버림이 더욱 참통하여 그 마음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

3) 저(임성주 자신)는 부모님이 대체로 건강하시니 다행이오나 지난해와 올해에 접어들어 상사, 질병과 우환이 거의 그치지 않아 학문의 재미도 황폐하니 중간에 비록 조금 짧은 시간에 보고 읽는다 하더라도 보는 대로 잊어버려 우러러 숭청(崇聽)을 더럽힐 것조차도 없습니다. //

4) 문하에서 강송하던 즐거움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정신이 달려가지 않으리오마는 쓸데없는 근심에 얽매어 결국 몸을 빼서 날새처럼 나아가지 못하여 이럭저럭 세월만 보내게 되어 가르침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보탬에 부응할 수가 없었으니 다만 괴롭고 창피할 뿐입니다. //

5) 최근에 이 일은 모두 일용에 있음을 깨닫고 성인들의 가르침인 순(舜)임금의 '오직 정(精)하고 오직 한결같아야 한다'는 경계와 공자(孔子)의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회복하라'는 말씀은 진실로 저의 허물을 경계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며, 경전 중에 천만 가지 말도 모두 이 양단에 벗어나지 않아 가득 채워 일상생활이 예에 합당한 경지에 이르러서도 또한 이 양단에 나아가 익숙해지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보고 깨달음에 매우 친절하여 조금도 전일의 확실히 모르고 맹랑하던 것과 조금 다르고 종전의 허다한 강설이 공언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6) 다만 멀리 스승과 벗들을 떠나 있어서 경계하고 채찍질 해 줄 사람이 없으니 잠깐 이치를 깨우칠 것 같으나 문득 어둡고 막히니 한 가지 욕심이 겨우 떠나가면 사투한 것들이 무리로 곧장 공격하니 이 공부로는 배로 노력하고 힘을 쏟아도 정신이 오랫동안 막혀있어 쾌활하게 학문에 나아가는 맛이 없으니 어떻게 몇 달 동안이라도 스승 곁에서 주선하여 굳게 세우고 지켜서 <스승의 가르침>에 함영하고 훈묵하여 인욕(人欲)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서 틈을 탈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면 천리는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

7) 인품이 본디 높으시고 학문의 길에 정도를 깨달으셔서 장차 ???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거처함에 사리에 어둡고 게으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심히 크니 위로가 되고 다행스러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만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주 회합하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됩니다. //

8) 문자 간에 우러러 질정 받을 것이 하나가 아니지만 멀리서 글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름에 혹시 말을 언도록 계획하여 크게 움직이려고 하니 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뵈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지은 것은 성중에서 붙이느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라오니 어느 날에 받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도체가 강건하시기를 바라옵고 이만 갖추지 못하오니 삼가 하람하시기를 바라오며 서간을 올립니다. //

庚申(英祖 10년, 1740) 3월 21일 侍生 服人 任聖周(1711-1788)再拜

//: 임의로 나눈 단락의 표시임.

<표 5> 녹문 임성주의 자필 서간의 단락 구성

단락	핵심 내용
1) 단락	임성주가 스승인 도암 이재의 안부를 여쭙는 것임.
2) 단락	친구 대심(大心; 李維의 字)이 죽어서 2주기가 지났는데 대상이 지나기 전에 묘에 가기로 했는데 가지 못했음을 슬퍼함.
3) 단락	집안에 우환과 상사 등이 많아 학문은 제대로 하지 못함을 걱정함.
4) 단락	임성주가 도암 이재에게서 강송하던 시절을 생각하며 학문의 진도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함을 염려함.
5) 단락	순(舜)임금의 ‘오직 정(精)하고 오직 한결같아야 한다’ ‘精一’의 경계와 공자(孔子)의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회복하라’는 ‘克復’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 함.
6) 단락	스승과 벗들을 떠나 있어서 경계하고 채찍질 해 줄 사람이 없으니 학문의 진도가 잘 나아가지 않음을 걱정하고 스승 곁에서 공부하기를 소망함.
7) 단락	임성주가 도암과 길이 멀어 자주 회합하지 못함을 걱정함.
8) 단락	임성주가 스승에게 질정 받을 것이 많아 여름에 말을 빌려 뵈올 계획이며 붙인 글은 어느 때나 받게 될지 우려함.

1) 1단락은 임성주가 스승인 도암 이재의 안부를 여쭙는 것이다.

임성주가 스승인 도암 이재에게 보낸 서간은 네 편만이 문집에 실려 있다. 이 자필 서간은 도암에게 보내려고 썼던 서간의 초안으로 여겨진다. 우선 1단락의 전체 문장인 “光儀 倏已踰年 區區慕仰 無日不耿耿”而討便未易 數字問候 亦不能以時 罪悚悵悵 何可言喻」春氣乖常 「伏未審」靜中體候 若何”를 참고하면, 「而討便未易 數字問候 亦不能以時 罪悚悵悵 何可言喻; 인편을 찾지 못하여 몇 자 적어 문후 여쭙는 것도 역시 제때에 하지 못하였으니 죄송하고 슬픈 마음을 어떻게 말로 비유하리오.」의 부분과 「伏未審; 살피지 못한」의 문장은 임성주 입장에서 스승에게 제대로 문후를 여쭙지 못한 죄송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이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문장에 「」를 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2) 친구 대심(大心; 李維의 字)이 죽어서 2주기가 지났는데 대상(大祥)이 지나

29) 이유(李維): 자(字)는 대심(大心)이고 호(號)는 지암(智庵)이며 도암선생(陶庵先生)의 종제(從弟)이다.

기 전에 묘에 가기로 했는데 가지 못했음을 슬피하는 내용이다.

임성주는 이유(李維)의 대상이 지나기 전에 묘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가지 못한 애통한 마음을 실어 그 내용을 서술했다. 하지만, 관련된 문장 전후에 “『日月不住大心之死 歲將再周矣 每一念及 不禁愴涕 擬於祥事未過之前 以鷄絮一哭於墓前 而亦復因循未遂 孤負幽明 尤覺慙痛 無以爲懷也; 일월이 머물지 않아 친구 대심(大心)이 죽은 지가 2주기가 되었습니다. 매번 생각이 미침에 서글퍼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지나기 전에 계서(鷄絮: 닭 한 마리와 술에 적신 솜)로 묘 앞에서 한 번 곡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미적거리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뜻을 저버림이 더욱 참통하여 그 마음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와 같이 ‘ㄱ’ 표시를 하고 있다. 이는 추측컨대 임성주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친구이긴 하지만 스승인 도암의 종제여서 예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애통스러워 하는 자신의 태도를 스승 앞에 드러내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망설이다가 다시 고려해 보려고 문장에 ‘ㄱ’를 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3) 3단락은 집안에 우환과 상사 등이 많아 학문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임성주가 도암에게 서간을 쓴 시기는 영조 16년(1740)으로 그의 나이가 30세였다. 앞서 있었던 집안의 상사나 우환, 중요한 일들을 보면, 18세이던 영조 4년(1728)에 아버지 임적(任適)이 돌아가셨고, 영조 5년(1729)에 형인 임명주(任命周)와 함께 모친을 모시고 청주(淸州) 옥화대(玉華臺)로 들어가 형제들과 학업을 익혔다. 영조 6년(1730)에는 부인 맹씨(孟氏)의 상을 당하였다. 영조 9년(1733)에 어머니의 뜻에 따라 형 임명주와 함께 사마시에 응시하였다. 영조 13년(1737) 겨울에 모친을 모시고 여강(驪江)으로 거처를 옮기고, 영조 19년(1743)에 다시 여강에서 서울로 이거하였으니 6년간 여주에 머물렀다.

위에 열거한 사실에 의거하여 임성주가 30세가 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청주 옥화로 내려가서 형제들과 공부에 열중하던 중 그의 부인 맹씨가 죽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형과 함께 사마시를 보았고, 그의 형은 대과를 거쳐 정계에 나아갔다. 임성주는 대과에

는 응시하지 않고 형을 대신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여주로 내려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청주와 여주로 옮겨 다니면서 무척 곤궁하게 살았고, 학문에 전념하여 집안 살림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 여겨진다.

4) 4단락은 임성주가 도암 이재에게 가서 강송(講誦)하던 시절을 생각하며 학문의 진도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함을 걱정하는 내용이다.

임성주는 스스로 학문에 뜻을 세워 공부하다가 영조 3년(1727) 17세에 과거시험을 위한 공부와 아니고 도학을 공부하기 위해 도암(陶庵 또는 寒泉)에게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다. 이후 그의 제자가 되어 학문에 진력하였다. 그가 도암 이재와 집중적으로 강송하던 시절은 영조 6년(1730)에서 영조 10년(1734)까지로, 당시에 함께 질문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한천어록(寒泉語錄)』을 펴냈다. 그 주요 내용은 학문의 자세와 사서삼경(四書三經)에 대한 부분적인 토론과 『심경(心經)』의 칠정(七情)에 관한 견해 등이 수록되어 있다.³⁰⁾ 이외에도 『녹문집』의 『행장(行狀)』에 도암의 연원들과 강송한 것을 보면, 영조 10년(1734) 12월 24일에는 화양산에 들어가 50여 일간 『중용(中庸)』을 읽고 『중용의의(中庸疑義)』 1권을 저술하였고, 영조 12년(1736) 겨울에는 송명흠(宋明欽, 1705-1768), 송문흠(宋文欽, 1710-1752) 형제와 송능상(宋能相, 1710-1758), 김원행(金元行, 1702-1772), 김양행(金亮行, 1715-1779) 등과 함께 회덕(懷德)의 옥류각(玉流閣)에서 『대학(大學)』을 강독하고 『옥류강록(玉流講錄)』을 저술하였다. 영조 13년(1737)에는 여강으로 거처를 옮기고 민우수(閔遇洙, 1694-1756), 김원행(金元行) 등과 강학하며 도의를 연마하였다.

5) 5단락은 순(舜)임금의 ‘오직 정(精)하고 오직 한결같아야 한다.’는 ‘精一’의 경계와 공자(孔子)의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회복하라.’는 ‘克復’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녹문 임성주는 26-27세에 이미 ‘이기동실(理氣同實)’의 명제를 중심으로 이기론(理氣論)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 서간을 쓰던 시절이 30세이니 37세-38세 사이의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에서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정립하기 이

30) 孫興徹, 『鹿門 任聖周의 삶과 哲學 (연세국학총서 43)』 (주지식산업사, 2004), 59.

전이다. 이 자필 서간에 언급되고 있는 녹문의 ‘인심도심론(人心道心論)’의 문헌적 연원은 『상서(尙書)』 『대우모(大禹謨)』의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다.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그 가운데(中)를 잡아라.”에 두었다.³¹⁾ 녹문은 후일 인심도심론을 확립하면서, 인심과 도심 가운데 도심이 마음의 주체가 되도록 정립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수양의 요체로 보았는데, 이론의 근거는 공자의 ‘克己復禮’, 맹자의 ‘大體’와 ‘小體’, 동중서의 ‘道義’와 ‘功利’, 정자의 ‘遏人慾存千里’, 주자의 ‘觸手便 成兩片’ 등을 들었다.³²⁾ 녹문은 이 서간에서 순(舜)임금의 ‘惟精惟一’과 공자의 ‘克己復禮’를 생활 속에 실천하려 한다는 다짐을 스승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심도심설의 연구에도 매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인심이 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밀하게 하고, 도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초지일관하는 공부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간파한 것이다.

6) 6단락은 스승과 벗들을 떠나 있어서 경계하고 체찍질해 줄 사람이 없으니 학문의 진도가 잘 나아가지 않음을 걱정하고 스승 곁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녹문은 일상생활에서 ‘惟精惟一’과 ‘克己復禮’를 행하려면 같은 길을 가는 스승과 벗들과 함께해야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그들을 떠나 있어 학문의 진도가 잘 나아가질 않으니 스승 곁으로 돌아가서 공부에 매진하고 싶은 속마음을 간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7) 7단락은 임성주가 길이 멀어 도암과 자주 회합하지 못함을 걱정하는 내용이다.

31) 李基庸, “栗谷 李珣의 人心·道心論 研究,”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4), 16-21.

32)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권15 『尙書』 乙酉·丙戌(1765-1766, 鹿門 55-56세) 大禹謨. “人之所以爲人. 性與形而已. 而心則具是性而主於形. 故所謂性與形者. 皆由心而作用焉. 所謂人心道心者此也. 是故人之所以爲學者. 無他焉. 只精察乎二者之間. 知其爲道心則明之擴之. 唯恐一毫之未盡著. 知其爲人心則防之克之. 唯恐一毫之未盡淨. 如斯而已. 是則所謂唯精唯一者. 而孔子所謂克己復禮. 孟子所謂大體小體. 董子所謂道義功利. 程子所謂遏人慾存天理. 朱子所謂觸手便成兩片者. 皆指此而言耳. 從上聖賢相傳旨訣. 端的在此. 更無餘法.”

녹문은 도암 이재의 인품 속에 함영하여 지도를 받고 싶지만 거리가 멀어 자주 회동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8) 8단락은 임성주가 스승에게 질정 받을 것이 많아 여름에 말을 빌려 뵈올 계획이며 붙인 글은 어느 때나 받게 될지 걱정하는 내용이다.

녹문은 공부를 해나가면서 의문 나는 것들은 모아 여름에 찾아뵈기를 약속드리고, 글을 써서 성중에서 붙인 것이 인편을 통해서 잘 전달되기를 희망하면서 서간을 마감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글은 임성주가 영조 13년(1737) 겨울에 모친을 모시고 여강(驪江)으로 거처를 옮기고, 영조 19년(1743)에 다시 여강에서 서울로 이거하기까지 6년간 여주에 머물렀던 시기의 영조 16년(1740)에 도암 이재에게 올린 서간의 초안이다. 서간에 보이는 ‘ㄱ’은 임성주 입장에서 스승에게 제대로 문후를 여쭙지 못한 죄송한 마음을 드러낸 것과 친구 대심(大心; 李維의 字)이 죽어서 2주기가 지났는데 대상이 지나기 전에 묘에 가기로 했는데 하지 못했음을 슬퍼하는 내용은 생각의 여지를 두기 위해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서간의 핵심은 녹문이 집안에 우환과 상사가 많아 학문의 진도가 잘 나가지 않지만, 순(舜)임금의 ‘惟精惟一’과 공자의 ‘克己復禮’를 생활 속에 실천하려 한다는 다짐을 스승에게 하는 것과 강송시절의 그리움과 자주 뵈지 못하는 회환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학문에 진력하고자 하는 자신의 굳센 다짐은 글 이면에 숨겨져 있다. 끝에는 공부에 의문 나는 것들을 질정 받기 위해 스승에게 찾아 뵈 것과 인편에 먼저 지은 글을 보냈는데 잘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다.

5. 결 론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의 자필 서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1)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의 자(字)는 중사(仲思)이고 호(號)는 녹문(鹿門)

이다. 녹문이 살던 18세기 전후 학문의 풍토는 예론(禮論)을 중심으로 한 당쟁이 격화되는 시기로, 호락(湖洛)논쟁이 전개되었으며, 실학이 형성된 시기였다. 녹문에게는 이러한 예학과 호락논쟁이 학문을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그의 사승(師承)관계를 알게 해 준다. 녹문 임성주의 학문 전승은 율곡 이이 → 사계 김장생 → 우암 송시열 → 농암 김창협 → 도암 이재 → 녹문 임성주로 이어지는 낙학과(洛學派)이다. 낙문에 기반을 두면서도 스승인 이재(李穡)가 주장한 심성설인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호론이 주장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하였고, 이기설(理氣說)에 있어서는 주리설(主理說)을 배격하고 주기설(主氣說)을 주장했으나 만년에는 양설(兩說)을 절충하여 이(理)와 기(氣)의 이원론적 관념을 기(氣)의 일원론적 관념으로 통일 발전시켜 조선조 성리학 육대가(六大家) 중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다.

2) 『녹문선생문집』 권1에는 임성주가 영조 3년(1727) 12월, 영조 6년(1730), 영조 13년(1737), 영조 21년(1745)에 쓴 네 편의 서간이 실려 있다. 영조 3년(1727) 12월의 서간은 녹문이 17세에 도암 이재에게 문하의 제자로 받아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영조 6년(1730)의 서간은 녹문이 20세 되던 해에 도암 이재에게 의문점을 물어보기 위해 쓴 것인데 실제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조 13년(1737)의 서간은 녹문이 27세 되던 해에 도암에게 올린 것으로 미발심체(未發心體)의 선악을 다루는 심론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영조 21년(1745)의 서간은 녹문 임성주가 35세 되던 그해 가을에 도암에게 올린 것으로 집안의 합제(合祭) 문제에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다.

3) 임성주의 자필 서간은 『녹문선생문집』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녹문 임성주가 영조 16년(1740) 여주에 있으면서 그의 스승인 도암 이재에게 올리려고 작성한 초안이다. 서간의 크기(세로 × 가로)는 61.4 × 38.2cm이다. 필첩 전체는 본문은 세로 25줄, 서간 위쪽 여백에 가로 3줄이다. 전체 글자 수는 본문 475자, 자필연도 17자이다. 스승과 관련된 글자인 ‘후(候)’, ‘정중체후(靜中體候)’, ‘문하(門下)’, ‘함장지간(函丈之間)’, ‘등람(登覽)’과 ‘하람(下覽)’ 등의 앞에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공격(空格)을 두고 있다

이 서간 글씨체의 특징은 안진경의 해·행서에 바탕을 두고 필세(筆勢)와 자세(字勢)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강한 기운이 있으면서도 유창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결체(結體)는 근엄하면서도 풍격은 수려하지만 변칙의 멋스러움이 있으면서도 선비의 품격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 녹문의 글씨체에 능서가로서의 특징과 몇 부림이 살아 있는데 이와 같은 글씨들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已)’자는 안진경체에서는 단아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녹문 글씨체에서의 ‘已’, ‘巳’, ‘巳’, ‘巳’, ‘巳’의 특징은 파임 처리에 있어서 종획을 길게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나머지는 글씨체에 다양한 변화의 미를 가하여 기교를 부렸다. 기타 ‘也’, ‘也’, ‘死’, ‘先’, ‘兀’도 파임의 종획과 횡획, 끝마무리의 특징이 독특한 자체들이다.

둘째, ‘지(之)’는 안진경체의 특징이 잘 살아 있는 글씨체이다. 녹문 글씨체의 ‘之’, ‘之’, ‘之’, ‘之’, ‘之’에서 나타나는 장날(長捺)의 파임획은 모두 경사지게 길게 운필하여 오목하게 멈춤 하여 다시 위로 부드럽게 올려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口’와 ‘日’의 아랫부분인 ‘亅’가 안진경체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글씨체이다. 다만 장날(長捺)의 파임 처리가 다르다. ‘迨’, ‘迨’, ‘遂’도 장날의 파임획은 위의 획을 감싸듯 마무리하여 각각의 특징이 있다.

셋째, ‘上’과 ‘上’ 글씨체는 약간 기교를 부려 ‘冫’는 마지막 획을 길게 처리하여 멋을 부리고 있다. 넷째, ‘春’, ‘春’, ‘春’는 좌측 빼침획을 유난히 길게 하여 다음에 오는 글씨체와 균형을 맞추고 있고, ‘光’와 ‘光’와 같이 윗 글자는 왼쪽 빼침 획을 길게 하고 아래 글자는 오른쪽 파임 획을 길게 하여 두 글자가 어우러지도록 몇 부림의 기교를 한껏 부리고 있다.

4) 이 글은 내용의 전개상 여덟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단락은 임성주가 스승인 도암 이재의 안부를 여쭙고 있다. 2단락은 친구 대심(大心; 李維의 字)이 죽어서 2주기가 지났는데 대상(大祥)이 지나기 전에 묘에 가기로 했는데 하지 못했음을 슬퍼하였다. 1단락과 2단락의 문장 중에 ‘**ㄱ**’를 표시한 것은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이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체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분이 서간이 초안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단락은 집안에 우환과 상사 등이 많아 학문은 제대로 하지 못함을 걱정하였다. 4단락은 도암 이재에게서 강송하던 시절을 생각하며 학문의 진도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함을 우려하였다. 5단락은 순(舜) 임금의 ‘惟精惟一’과 공자의 ‘克己復禮’를 생활 속에 실천하려 한다는 다짐을 하는데, 녹문은 당시 인심도심설의 연구에도 매진하여 인심이 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밀하게 하고, 도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초지일관하는 공부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고 간과한 것이다. 6단락은 녹문은 일상생활에서 ‘惟精惟一’과 ‘克己復禮’를 행하려면 같은 길을 가는 스승과 벗들과 함께 해야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그들을 떠나 있어 학문의 진도가 잘 나아가질 않으니 스승 곁으로 돌아가서 공부에 매진하고 싶은 속마음을 간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7단락과 8단락은 임성주가 도암과 길이 멀어 자주 회합하지 못함을 걱정하고, 스승에게 질정 받을 것이 많아 여름에 말을 빌려 뵈올 계획이며 붙인 글은 어느 때나 받게 될지 우려하는 내용이다.

<참고문헌>

- 강순애. “任允摯堂의 送序文 『拜送仲氏南歸序』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91-118.
- 강순애. “『윤지당유고』 편찬·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9집(2014. 9). 43-64.
- 강순애.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의 자필 서간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61집(2015. 3). 231-261.
- 권오영. “18세기 洛論의 學風과 思想의 계승양상.” 『진단학보』 108(2009). 193-229.
- 김문준. “김창흡의 학문경향과 후대의 영향.” 『한국인물사연구』 2(2004). 1-20.
- 김 현. “조선후기 미발심론의 심학적 전개.” 『민족문화연구』 37(2002). 347-371.
- 金 炫. “任聖周의 人物性論.” 『儒教思想研究』 (1993). 45-56.

金 炫. “雲湖 任靖周의 理氣心性論.” 『東洋哲學研究』 제14집(1993). 207-223.
孫興徹. 『鹿門 任聖周의 삶과 哲學 (연세국학총서 43)』. 서울: (주)지식산업사, 2004.
李基庸. “栗谷 李珥의 人心·道心論 研究.”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4.

任敬周. 『청천자고(靑川子稿)』 3卷 1冊. 정조 18년(1794).

任聖周.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26卷, 附錄, 合13冊. 정조 19년(1795).

任允摯堂.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2권 1책. 정조 20년(1796).

任 適. 『노은집(老隱集)』 4卷, 附錄, 合2冊. 정조 18년(1794).

鄭炳連. “녹문 임성주의 생애와 그 학술 경향.” 『퇴계학보』 101권(1999). 75-134.

『朝鮮王朝實錄』 37卷, 正祖實錄 十七年(1793年) 5月 24日 乙卯條.

Daum 백과사전. 한원진(韓元震). [검색일자 2015. 9. 9]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4h2992a>>.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용인문화대전. 호락논쟁. [검색일자 2015. 10. 10]

<http://yongin.grandculture.net/Contents?local=yongin&dataType=01&contents_id=GC00900387>.

